

중세시대의 무용현상을 통한 무용의 발전방향 모색

김수진*

박순자**

논문초록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쾌락주의, 성(性)의 상품화, 이단과 미신, 전염성 바이러스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현상은 중세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유사하다. 중세시대의 개인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은 점차 사회적 공포로 확산되었고 인간은 무용을 통하여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로 인하여 중세시대의 무용은 몸의 제의(祭儀)로 인식되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인해 신체를 미천하게 여김으로 무용의 금지령을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반면, 인간의 신분을 계급화 하였던 봉건제도로 인하여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무용을 파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세시대의 무용은 집단무형식의 원무와 행렬무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의 동작과 스텝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카타르시스와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게 하며 전염을 통한 집단의 엑스타시 현상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세시대의 무용현상을 바탕으로 오늘날 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보면 첫째, 무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공연, 타 장르와의 크로스 오버 등과 같은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 댄스, 무용 동작치료, 춤 치료 등과 같은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한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무용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카타르시스, 엑스타시, 전염성이라는 특수한 요소를 가진 예술이므로 종교적 자각에 의한 선한 예술의 감염으로 만인에게 평등과 사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기독교적 예술관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현대사회는 중세시대를 답습하지 않고 무용인들의 자각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무용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세시대, 봉건제도, 기독교, 사회적 현상, 무용현상, 기독교적 예술관, 생명

*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soonja@sookmyung.ac.kr

2015년 5월 15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10일 게재확정

1. 서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라는 성경의 첫 구절이 시작되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용은 그 생명력을 인간과 함께 하고 있다. 이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용은 종교적, 교육적, 치료적 목적 등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용이 갖는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 인간의 모든 생활을 표현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인간의 의사소통의 3분의 2정도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¹⁾에 비추어 볼 때, 무용은 곧 인간의 삶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한다. 나아가 인간의 사상은 그 시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정을 실어 신체로 표현하기 때문에 무용은 역사에 따른 시대상과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무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종교성이라 할 수 있다. 종교성이 사회전반을 지배한 시대는 원시시대와 중세시대를 들 수 있다. 원시시대의 무용은 종교적 숭배의 수단과 종족 보존을 위한 힘의 표현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단(박지영, 2000: 1)으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입각하였다. 반면, 중세시대는 철저히 기독교가 반영된 시대라 할 수 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유럽시대의 정신적 기반이었고 그들의 생활과 모든 예술 부분의 성격에서도 기독교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박정화·육완순, 1996: 336).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오늘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기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기독교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하였고 예술에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교회였다. 이렇듯 중세시대는 본질적으로 종교의 시대이자 모든 예술의 개성이 종교의 규범과 제약으로 성립된 시대라 할 수 있겠다(육동림, 2008: 6).

기독교 이외에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는 봉건제도라 할 수 있다. 종교와 더불어 계급제도가 존재했던 중세사회는 봉건제도사회로 귀족과 농민이라는 두 계급으로

1)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체계로 주요 요소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인공두뇌학(cybernetics), 숨은 의도 해석(decoding), 환류(feedback), 동작학(kinesics), 메타메세지(metamessage) 주변언어학(paralinguistics), 인공공학(proxemics) 등이다.

나누어진 사회였다. 두 계층은 문서로 그 관계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계층은 묵시적이고 세부적인 철저한 규범 속에 나누어졌고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무용문화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지배층인 귀족들에게는 무용은 사교의 수단이었으며, 피지배층인 농민들에게 무용은 억압받고 고달픈 자신들의 생활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일종의 도피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시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던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다.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등에 대한 현실도피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기대와 갈망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무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을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이해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였으며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를 통한 심리적 욕구 해소라는 치료적 기능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의 무용은 예배를 위하여, 성도간의 교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박순자는 “기독교 무용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무용적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추는 일체의 것” 이라고 하였다. 교회 내에서의 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포교를 위한 수단이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금욕주의로 인해 결국 무용금지령이 내려졌고, 무용의 암흑기라 불리울 만큼 침체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중세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최대의 수혜자이자 가장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화 속에서의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통한 향유가 아닌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성(性)의 상품화와 쾌락주의 등과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이단과 미신들이 많아지고, 신종플루나 에볼라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시대에도 나타나는데 탐욕주의, 금욕주의로 인한 성의 상품화와 많은 이단과 미신들, 흑사병과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이 중세시대에도 나타난 것이다.

과거 인간은 스스로의 나약함을 무용을 통해서 해소하였다. 중세시대 죽음의 춤, 무

도광, 성 비투스 춤, 타란텔라 뿐 아니라 농민들이 추었던 포크댄스와 사교무용 등, 인간은 개인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사회적 공포를 확산시키게 되자 무용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작은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사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 나약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앞서 밝혔듯이 중세시대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사회현상이 나타났고 중세인들은 무용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물론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무용의 금지령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대사회가 중세시대를 거울삼아 살펴보고 오늘날 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중심이었지만 타락함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기독교적 예술관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용예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세시대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통해 무용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의 무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가 중세시대의 사회 전반의 토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암흑기라 불리울 정도로 침체된 이유를 사회적 배경을 통해 연구한다. 둘째, 중세시대의 대표적 중심키워드인 기독교와 봉건제도를 통하여 파생된 무용의 종류를 연구한다. 셋째, 위의 연구를 토대로 중세무용의 대표적인 형태와 심리적 현상을 분석한다. 넷째, 중세무용의 특징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이상의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수예술로서의 접근이 아닌 중세사회 전반의 무용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무용, 무용예술이라는 용어를 무용으로 통칭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무용현상에 대하여서는 한국의 현대 무용현상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 관점 중 개신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독교(Christianity)는 본디 천주교와 개신교, 정교회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오늘날의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해 점차 카톨릭에서 분리되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무오설²⁾, 교황 무오설, 성례전³⁾과 구원이 연관이 있다는 주장, 종교다원

2) 무오설(無誤說) 죄와 허물이 없다. 무흠하다.

주의 등에서 개신교와 차이를 보인다(이정복, 2015: 88-91). 개신교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가 분리되기 이전인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중세를 연구함에 있어 기독교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선행된 박희진, 태혜신의 2011년 『무용사회학 관점에서 본 중세시대의 무용예술의 의미』에서는 중세시대의 무용을 무용사회학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중세시대의 무용은 일상과 신앙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율배반적인 무용으로 인간의 본성임과 동시에 무용예술 존재의 사회적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오늘날 흔히 중세무용에 대하여 무용의 암흑기라고 평가하지만 실상 중세무용은 어느 시기보다도 자발적이었고, 능동적인 양상을 띄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무용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무용 인식에 대한 암흑기”로 평가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무용은 인간의 본성임과 동시에 무용예술 존재의 사회적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연의 2010년 연구인 『중세 유럽의 무용세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신체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시대로 교회에서의 무용의 원칙적인 금지와 무용의 현실적인 강력한 비중 사이에서 갈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회라는 성지에서 성서라는 교리에 의한 무용은 수용되었는데 이로써, 무용의 암흑기라는 오명 속에서도 기독교에서는 무용이 항상 수반되었다. 또한, 종교무용과 함께 봉건제도로 인하여 귀족무용과 농민무용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장르가 전개되었다. 더불어 중세시대에는 다른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의 춤, 무도병, 타란텔라 등과 같은 광적인 표출의 수단으로 무용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중세 무용은 기독교의 금욕주의 신체관으로 무용의 암흑기라는 오명을 얻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무용이 발전하는 혼돈의 역사였다.

심정민의 2005년 『중세 무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시대의 무용은 3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중세시대의 무용은 첫째,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귀족과 농민의 춤이 구분되어 전개된 것이며 각각의 무용은 서로 다른 형태와 양식으로 개발되었다. 둘째, 중세시대의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현실적인 강력한

3) 천주교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신품, 혼인 등의 7가지 성례전을 행하지만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경적이라 믿는다.

비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당시 무용이 퇴폐적인 향락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금욕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시대 교회에서의 무용에 대한 입장은 이율배반적이었다. 셋째,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무용들은 히스테릭한 광분으로 표출되며 춤의 광적 엑스타시 현상을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가진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중세무용은 일상과 신앙의 비일치로 인한 이율배반적인 무용이며, 금욕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회는 무용에 대하여 금지령과 종교무용에 있어서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매한 입장이었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중세무용은 무용의 암흑기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 현상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무용의 암흑기가 아닌 무용 인식에 대한 암흑기라는 재평가를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는 중세시대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세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나타난 무용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중세시대와 비슷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무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중세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무용

중세(Middle Ages)라는 용어는 15세기 중반 로마 교황청의 도서관 사서였던 지오바니 안드레아가 처음 쓰기 시작하였으며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로마를 고대, 르네상스 시대를 근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중간 시기를 중세라고 불렀다(이석우, 2005: 97). 중세시대는 귀족들의 부도덕과 사치, 군대의 제위 쟁탈전 및 생산과 교역의 침체와 귀족의 탈세 등으로 로마 정부의 재정에 손실이 생기면서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로마문명은 북쪽으로부터 이주해 온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 로마의 멸망이 촉진되던 5세기 말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약 1000년간의 시기를 뜻한다.

초기 중세시대는 5~9세기로 공화정이었던 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에서는 각 지방의 영주들이 농민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지역적으로는 당시 유럽문화 지역과 그리스인, 슬라브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동유럽 문화지역, 아랍인에 대한 사라센 제국

의 문화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초기 중세사회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과 전쟁으로 도로를 비롯한 도시 전반이 파괴되었다. 때문에 로마의 발달된 도시 문화와는 다른,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곳에서 땅을 기경하고 일구며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서부터 점차 안정을 찾는 농촌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농촌 중심의 사회는 후기 로마제국에서부터 나타난 장원제⁴⁾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중세시대의 계급은 크게 왕, 성직자와 귀족, 평민(농노, 노예)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봉건제도를 통한 계급은 크게는 영주와 농노라는 귀족과 농민 계급으로 구성되었고 농노는 땅을 경작하고 그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으나 원시적인 농기구를 사용한 농사의 결과물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농노들은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대가를 받기 어려웠다. 아직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초기 중세사회는 화폐가 아닌 농축산물을 영주에게 바치거나 필요한 것은 서로 교환하는 실물경제 단계인 물물교환에 의한 사회였다.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 왕조와 샤를마뉴 치세 때가 되면서 점차 발전한 농업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불안했던 사회도 점차 안정되었다. 초기 중세 시대의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교육은 극히 제한된 지방 교육만이 이루어졌고 예술도 발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제휴함으로써 서유럽 일대의 새로운 문화예술을 형성한다. 이는 당시 교황이 성상파괴의 문제로 비잔틴 제국과의 결탁을 끊으면서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결합하게 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기독교 문화는 동유럽의 비잔틴 문화와 사라센 제국 등의 이슬람 문화에 맞서면서 점차 발전하였고 중세 전반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 중세시대는 9~13세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10세기가 지나면서 중세사회는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중기 중세시대의 산업은 장원제를 토대로 농업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사회·경제·문화적 조건도 변화되어 농업혁명, 농노해방, 세련된 귀족생활이 상업의 부활과 도시발달을 자극하였다(육동립, 2008: 5). 즉, 농업의 생산증대와 지중해

4) 봉건사회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영주의 토지소유 형태로 장원의 중심에는 영주 자신 또는 관리인이 살고 있으며, 하인과 직인의 오두막집, 창고, 작업장 등이 부속되어 있다. 농민의 가옥은 보통촌락을 이루고 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상인계급을 형성하게 하였고 물물교환의 경제활동을 화폐경제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인구를 증가시키고, 중세도시의 발생을 가능하게 했다.

정치적으로는 봉건제도의 토대 위에 권력이 분산되어 각 지방에 맞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군주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백은아, 2006: 10). 군주국가는 소단위의 지방의 특성에 맞게 통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치에 시민이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불안정했던 사회에 정치적 안정감을 갖게 했다. 더불어 교황군주국가가 등장하여 성공을 거듭함으로써 교황의 국제적 지배를 통한 종교관행의 국제적 교류, 통일성 제고와 함께 교회법을 발달시키며 모든 법률을 통하여, 시민의 보호와 성직자의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했다(백은아, 2006: 13). 앞서 밝혔듯이 개인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적 삶, 즉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 설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기독교가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계급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세 초기 성직자는 다른 귀족과 마찬가지로의 신분이었으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분을 초월한 왕을 제외한 제1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어 성직자-귀족-기사-평민(상인, 농노, 노예)라는 새로운 체계의 계급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세시대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통해 모든 생활을 신 중심으로 이루며 신에게 가까워지려는 중세인들의 욕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백은아, 2006: 6). 중세시대가 절대적인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단적인 예로 200년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십자군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왔다는 것이다. 성지수호와 이교도와의 전쟁이라는 사상의 영향 속에 1095년부터 적어도 200년간 이어져 온 십자군 전쟁(Schmidt·정병호 옮김, 2010: 230)은 결국 종교전쟁이자 정복전쟁이었을 뿐,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만을 파괴하고 인간을 또다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게 하였다.

초기 중세시대의 후반에 봉건제도가 성립되고 중기 중세시대로 이어지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 봉건제도의 기사계급은 더욱 성장하였다. 12~13세기에 확립된 기사도는 기독교에 입각한 종교적, 윤리적 이념을 따라 주군에 대한 충성과 교회를 보호하고 신에게 봉사하며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백은아, 2006: 9)으로 명예를 중요시하고 그에 맞는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였다.

후기 중세시대는 13~15세기라 할 수 있다. 후기 중세사회는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국가가 성립되어 근대 유럽제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박정희·육완순, 1996: 336).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으로 땅과 집들은 버려지고 민중들은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새로운 경제상황을 모색하게 하였고 더욱 활발한 상업과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지중해 무역을 발전시키며 중기 중세시대에 형성된 상인계급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신분을 상승시켰고 결국 시민 계층을 형성하여 근대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긴 전쟁과 기근으로 14C 중엽 흑사병이 유행하였고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었다. 갑작스런 인구감소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식량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육동립(2008)은 후기 중세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인구과다의 병폐로 빚어진 결과이며, 이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파괴력 행사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한 바벨탑 사건(창세기 11: 1-9)과 대비하여 볼 때 인간의 세속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후 십자군 정복의 실패 등으로 중세 봉건제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교회마저도 세속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상의 중세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통하여 중세시대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던 전쟁과 기근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봉건제도와 기독교라는 큰 사회적 현상으로 중세시대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봉건제도와 무용, 기독교와 무용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고자 한다.

1. 봉건제도와 무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는 크게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계층인 농민이라는 두 계급으로 나뉜 사회를 말한다. 두 계급은 문서로 정해진 관계는 아니었으나 묵시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그 지위가 정해져 있었다.

정치적·법제적 측면에서 봉건제도는 일정한 의무수행에 대한 보답으로 수여되는 봉토를 의미하는 중세 라틴어 *feudalis*에서 유래된 말로 핵심 지배계층인 기사계급 내에 일정한 의무수행과 이에 대한 댓가로 봉토를 지급하는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군은 신하를 보호하며 신하는 주군을 위하여 군사력을 비롯한 노동력

등의 여타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봉건제도는 ‘농노제’에 입각하여 영주가 소유한 대토지를 직접 생산자(농노)에게 소규모로 분배하고 직접 생산자의 생산물을 영주가 경제적, 경제외적 방식으로 수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이석우, 2005: 104). 초기 중세시대 전반에 걸친 낮은 경제력은 땅을 경작하여도 그 소산물이 많지 않았으며 물물교환의 생산체제에서 화폐로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렇듯 봉건제도를 정치적·법제적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주종관계에서는 봉건 사회의 상층인 지배층 내부의 권력 배분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농노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인 영주와 농노의 사회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초기 중세시대 중에서도 이민족의 침략이 활발하던 9세기의 유럽의 나라들은 분열 상태였다. 때문에 외부침략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없었으며 국왕과 그의 군대 역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사 집단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들의 노고에 국왕은 봉토로 치하하였다. 잦은 전쟁은 상업과 무역을 쇠퇴하게 하였고 모든 경제생활은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을 위해서는 땅을 가진 이들의 권력이 강해지기 마련인데 곧 땅을 가진 이들이 영주이자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은 권력에 힘이 실어지면서 기사이자 영주가 되었고 집단이 생기면 그 속에 위계질서가 잡히듯이 1000년이라는 시간동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분권적 정부의 형태를 띤 봉건제도가 완성되었다.

중기 중세시대인 12세기가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은 중세의 유럽은 기사도라는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행동강령이 생기게 되었다. 주군에 대한 봉사와 교회와 신에 대한 봉사, 약자를 보호하고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귀족이자 영주인 기사에게 요구되었다. 반면, 대다수의 피지배층인 농노의 삶은 피폐하였다. 이들은 교회와 봉건제도의 통제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전염병이 돌고, 인구가 감소하여 사회, 경제가 쇠퇴해 갈수록 이들의 부역은 더욱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민과 귀족이라는 두 계층은 확연히 다른 환경과 생활을 하였으므로 무용의 목적을 비롯한 형식과 구성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농민들에게 무용은 잦은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고와 지친 삶에 대한 자신들의 억압되고 고달픈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숲이 그들의 힘든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정신적인 도피를 하게 했다면 무용은 말이

아닌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억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여유가 없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반항적이며 시위를 하는 듯 크고 난폭하며 거친 움직임이 많았다. 귀족과 달리 그들의 의상은 화려하고 치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의 제약이 없어 더 큰 움직임을 수행하며 가능한 한 크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자 하였다.

농민무용은 농민들에 의해 발생된 세속무용이자 억압된 정신을 표출하는 도약하는 형식의 활발하고 화려한 무용이었다. 농민무용은 크게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무형식의 라이겐(Reigen)⁵⁾과 쌍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댄스가 있었다. 즉, 집단생활을 했던 농민들은 무용에서도 집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서로 손을 잡고 밀착된 형식의 커다란 원을 만들거나 열린 원으로 춤을 추었다.

자연발생적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들의 무용은 주로 마을이나 공터, 광장 등의 좁은 장소에서 추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에 의해 수레무대가 운영되면서 공연을 위한 무용도 활성화 되었다. 이는 이동식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장소에 구애 없이 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민무용은 기교적으로는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춤추는 이의 심리적인 것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무용이 사용되었으며 그 종류에는 호팔데이(Hoppaldei), 아셴로텐(Ashelrotten), 스프링엘탄쯔(Springeltanz), 후베르쇼텐(Houbershotten)와 아젤로텐(Ahsel-rotten), 김펠 감펠(Gimpel gampel) 등이 있다. 각각의 무용의 특징으로는 호팔데이(Hoppaldei)는 농민들이 짝을 지어 날아가듯이 몰려다니는 형식으로 어깨를 들어 올려 팔과 함께 흔들며 다니면서 추었던 무용이다. 아셴로텐(Ashelrotten)는 활발하지만 다소 경박하고 에로틱하게 어깨를 흔들며 추었던 무용이다. 스프링엘탄쯔(Springeltanz)은 홉(hop)과 립(leap)으로 이루어진 와일드한 춤이었으며 후베르쇼텐(Houbershotten)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다니면서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움츠리는 무용이다. 김펠-감펠(Gimpel gampel)은 맹렬한 립(leap)으로 이루어진 스킵핑 댄스(Skipping dance)이다(박희진·태혜신, 2011: 32). 이처럼 농민무용은 주로 뛰며 정지 자세 없이 몸의 균형을 중요시하지 않은 흐트러짐의 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세시대의 포크댄스에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는 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않았으나 리듬과의 관련성을 가졌다. 가사의 소재면에서 연애, 농담, 풍자 등을

5) 원형무, 율무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지배계급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움직임 뿐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 농민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내고자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 등의 치유로서의 무용의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민무용은 그 지방만의 독특한 리듬과 분위기로 이루어졌으며 함께 즐기기 위하여 추어졌다. 이후 포크댄스는 점차 발전하여 귀족무용과 궁정무용으로 발달하게 되었지만 귀족무용과 궁중무용으로 발전된 무용은 농민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기 중세사회가 되면서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가고 봉건제도가 정착하면서 무용은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귀족들의 무용은 결혼식, 동지, 장례식 등에서 추어지는 선회무용, 가면무용, 불을 둘러싸고 추는 원형적 무용, 무기 무용, 오락무용 등이 있었으며(조미애, 1997: 47) 기사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사교무용이란 의식적인 의미가 배제된 모든 안무활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활동으로 참여하여 친밀감을 제공하는 춤을 말한다. 이러한 사교무용은 귀족의 무용으로서 사랑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애정표출의 수단이 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귀족의 무용은 농민의 무용을 모방하였으나 귀족의 화려하고 무거운 의상으로 그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상과 장신구, 또한 귀족층의 의식과 환경을 고려한 그들만의 움직임으로 새롭게 창작되어졌다. 초기에는 바세(basse)라고 하여 마루에서 발을 거의 떼지 않고 움직이는 동작을 행하였다. 또한 남녀가 커플을 이루어 즐기는 무용으로 남자는 힘과 민첩함, 여자는 우아함을 과시하는 춤이었다. 그들의 무용은 브랑르⁶⁾로 시작을 알렸으며 쌍을 이루어 연결된 한 선으로 추어졌다. 남녀 2인 무로 추어졌으며 마지막을 대무(對舞)⁷⁾로 맺는다. 이 춤의 중요한 점은 2인무로 한 번에 한 쌍씩 추었으며 나머지는 구경을 하였고 춤도 분위기에 따라 선택되었다. 춤의 형태로는 미끄러지기, 무릎 꿇고 절하기, 교태 부리기 등이 있었으며 애교부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박혜진·태혜신, 2011: 33).

한편, 가면무용은 중세 말기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가장행렬과 대행렬 양식의 무용이었다. 궁정 귀족의 실내 여흥으로 가면을 쓰고 행진한 것이며 후에 르네상스 귀족들이 이를 세련되게 다듬어 스펙터클한 쇼로 발전시켰다(김말복, 2011: 109). 나아가 극무

6) 2박자 계통의 프랑스 고전 춤곡으로 가보트와 비슷하다.

7) 여러 열의 군무.

용은 사교춤과 비슷하나 귀족인 전문 무용가가 참여하여 구약성서의 일화, 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무용으로 표현하였다. 덧붙여 극무용은 무용 뿐 아니라 음악, 시, 묵극⁸⁾, 기계 장치 등이 혼합된 하나의 공연물이었다. 이 무용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며 의상과 가면을 착용하였고 훗날 발레의 태동을 일으키며 순수예술의 발생에 토대가 되었다.

2. 기독교와 무용

초기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로마제국이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할 때, 이생에서의 어려움, 아픔 등을 위로하고 내세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등장하였다. 기독교는 물질보다는 정신, 영적인 것에 더욱 중점을 두며 하나의 안정된 종교로 등장하였다. 중세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의 7성사를 통해 인간의 태어남에서 죽음을 통한 천국으로의 인도까지 기독교의 영향 하에 있었다. 또한 기독교는 많은 중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행위는 물론,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신적 사상적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중기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교회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다. 기독교의 성장과정에서 교회는 독자적인 재판권과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정치적 권력체를 갖게 되었다. 이에 기독교는 자연적으로 정신적, 문화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중세사회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침과 동시에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토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금욕주의⁹⁾ 사상은 신체를 미천하게 여겨 신체활동을 금기시 했으며 그 영향은 무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경제발달로 세속적 가치가 높아지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 속에서 무절제해진 무용의 표현은 결국 539년 톨레도(Toledo)협의회를 시작으로 무용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즉, 처음부터 기독교가 무용을 탄압한 것이 아닌 무용이 변질됨으로 인하여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용금지령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갔으나 전 유럽의 교회가 무용을 모두 금지하지는 못하였다.

8) 펜터마임(pantomime)으로 대사 없이 몸짓 표현만으로 표현하는 연극적 형식을 말한다.

9) 그리스어 askesis에서 온 말로 정신적·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함으로써 종교나 도덕상의 이상을 성취시키려는 사상이나 태도를 말한다.

기독교는 후기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십자군 전쟁의 패배와 물질주의에 의한 타락으로 인하여 민중에게 면죄부를 팔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부정부패한 종교의 모습과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한 세속적 탐욕은 인간을 방탕하게 하였고 이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사상을 더욱 강화시켜 무용 금지령이 점차 확산되었다. 타락한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불신앙은 인간을 더욱 나약하게 하였고 스스로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으며 기독교가 아닌 미신과 이단 등의 신흥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교회 내에서의 무용은 ‘몸의 제의(祭儀)’ 인식되어 천국(天國)의 형상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용을 종교라는 옷으로 치장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추어졌다(김지연, 2010:78). 예배의식무용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교적 표현의 형식이었고 신성한 종교적 의식으로 노래와 함께 행해졌다. 즉, 중세시대 교회 안에서의 무용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수단이자 포교의 수단이었으며 교인들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무용은 크게 예배의식 무용과 축제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배의식 무용으로는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신비적인 무용인 그리스도 수난 무용극으로 그리스 무용형식에 따른 기독교회 최초의 송가로 이 송가 중 천사의 9번 노래와 10번 또는 그 전부를 노래하며 춤추었다. 또 다른 무용으로는 미로(labyrinth)에서 추는 춤을 들 수 있다. 나선형으로 행렬하는 무용으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리더가 인도하여 중심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의 무용이다. 이는 지하세계에 내려가 사탄을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해 나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의 무용이었다. 그 외에 트라이푸디엄(Tripudium)스텝¹⁰⁾과 그 외에 느린 스텝 템포를 조절하는 윤무 형태의 ‘예루살렘 가는 길’과 펠로타(pelota)라는 공을 가지고 추는 일종의 놀이무용도 있었다(박영애, 2006: 15).

교회 내에서의 무용에는 예배의식 무용 이외에 축제무용으로도 존재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춤은 순교자 축일 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무용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4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묘지를 찾아 순교의 승리를 기념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다(박영애, 2005: 172). 관례적으로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위한 예배의식의

10) 세 번의 스텝을 앞으로, 두 개의 스텝을 뒤로하여 한걸음 전진하기 위해 다섯 개의 스텝을 하는 것.

일부분으로 추었다. 순교자 축일 무용은 사제의 인도로 독창이나 합창에 맞추어 한명 혹은 여러 명이 원무나 행렬 형태로 춤을 추었으며 성물 앞에서도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직접 춤을 추며 중간에 박수소리나 발을 구르는 소리가 움직임을 이끌었다.

아가페(Agape)무용은 결정적으로 무용이 교회에서 금지가 되게 된 이유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에 소녀들이 남성의 상징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이 이교도적이며, 음란한 성격을 가짐으로 금지되게 되었다(백은아, 2006: 306). 그 외에는 집사(디콘, Deacon)들의 성 스티븐의 기념일의 무용과 성 요한의 기념일에 목사들이 추는 무용, 아기의 날에 추는 성가대 소년들의 춤과 할례의 축일에 추는 부집사들의 춤이 있다. 이러한 기독교 무용은 기독교인들의 절기 또는 축제 때 항상 포함되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 형태를 갖추어 갔다.

‘절기’, ‘거룩한 축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하가그(chagag)라는 단어는 그 외에도 “춤을 추는 것”이라는 의미 외에 “행렬하는 것”, “원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교회의 절기와 축제 때 원무(ring dance)나 행렬(procession)형태의 무용이 포함되었음을 암시 해준다(박영애, 2006: 10).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기쁨에 찬 원무”를 춤으로서 “우리는 악마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역동성은 후에 “악을 발로 짓밟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Doug·Diane, 2000: 65).

중세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 페스트와 콜레라, 천연두, 흑사병 등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죽음은 현세의 삶이 끝나고 천국이라는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여 영혼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표명하였지만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새롭다함을 얻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중세인들에게 죽음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절망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죽음 앞에 선 환자들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죽음과 영혼이 자유를 찾아 신에게로 나아가는 영광이 아닌 모든 인간의 한계상황으로 죽음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삶의 강탈자로 인식되었다(김영주, 1991: 23). 즉,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단과 미신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교회 외부에서 추어졌던 죽음의 춤은 그 근원을 원시시대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장례

의식과 해골이 나오는 무용과는 관련이 없다. 중세시대 죽음에 관한 필연성에 대한 설교와 함께 공동묘지나 교회 터에서 비롯되었는데 프랑스에 그 기원을 두고 이후 독일, 스페인, 영국등지로 번졌다. 또한 죽음의 춤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면에서 아주 제한된 현상이었다. 공포와, 두려운 존재로서의 죽음을 물리치는 수단으로 중세인들에 의해 추어지게 된 죽음의 춤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다(육동림, 2009: 11). 한 때 교회에서는 죽음의 춤에 긍정적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무용이 거칠고 외설적이며 미신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죽음의 춤에 대한 교회의 금지에도 교회 밖에서 죽음의 춤은 계속되어졌다. 죽음의 춤은 일반적으로 2인이 추었으며 살아 있는 자와 해골이 한 쌍을 이루어 해골을 흔들고, 몸을 꼬거나 발을 들어 올리고 뛰는 등 격렬한 무용을 하였다. 반면에 살아있는 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고정된 안무 없이 해골 또한 영감에 따라 추는 즉흥무용임을 추측할 수 있다(Germaine·양선희, 1990: 279). 최대 13~15세기에 걸쳐 나타난 죽음의 춤은 점차 의학이 발달되면서 병과 기아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게 되고, 운송체제가 발달하면서 기근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자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무도광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choros mania”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영어로는 “dancing madness”로 1278년 독일 마야스강 다리 위에서 200여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다리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기원된 이름으로 이후 “epidemic chorea(유행성 무도병)” 또는 “choreomania(무도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박영애, 2006: 34).

의학역사가인 시거리스트(Henry Sigerist)와 로젠(George Rosen)은 무도광의 행렬에 그리스나 로마의 의식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춤을 추는 이들은 힘든 사회적 환경에 대항해 신체적, 정신적 혼란의 광적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 춤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때문에 무도광은 공중을 팔짝 팔짝 뛰면서 춤을 추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호핑(hopping)을 하면서 추는 움직임을 가졌다. 또한 무도광은 행렬무용으로 성직자와 성가대 소년들이 행렬용 기치를 들고 앞장서면 순례자들이 그 뒤를 따라 4~5열 종대로 서서 트라이푸디엄(Tripudium) 스텝을 하는 행렬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도광은 모든 사람이 자의에 의해 춘 것은 아니었다. 행렬에 병자가 있기도 했지만 간혹 병으로 참여 할 수 없는 이를 대신하여 건강한 이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무도광은 추는 사람 뿐 아니라 구경꾼들에게도 전염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교적인 전통과 접신과 같은 미신적인 현상이 나타

나면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마당에서 갑자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병적 현상으로 교회에서는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중세시대의 또 다른 무용인 성 비투스 춤(St. Vitus Dance)은 1000년부터 1300년경까지 전 유럽에 퍼졌던 춤으로 고뇌로부터 보호해 주는 수호신의 이름을 딴 무용(배소심·김영아 1985: 67)이며 일각에서는 무도광과 같은 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춤은 남녀노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뛰고 돌아다니면서 간질병처럼 전신을 비틀고 입가에 거품을 물면서까지 추는 춤으로 추는 사람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무용에 대한 열기가 높아져 손을 잡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추었다. 집단무용이 되기도 하였고 윤무가 되기도 하였으며 도약하며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또한 한번 시작하면 쓰러질 때까지 추었으며 무도광과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마저 끌어드리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타란텔라(Tarantella)는 성 비투스 춤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춤은 ‘리코사 타란텔라’라는 거미에 물려야 나타난다고 했다. 무용의 이름인 타란텔라는 타렌툼(Tarentum)이라는 도시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남부 이탈리아의 격렬한 도약 춤인 타란텔라만이 거미에 물려 일어난 우울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준다. 춤이 병든 자신을 고치기 위한 일종의 보조역할을 하였지만 구경꾼들을 감염시켜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기도 하였다(작스, 1993).

타란텔라는 반복적이고 강한 리듬에 맞춘 격렬한 도약춤이다. 환자를 최면상태로 유도하여 카타르시스를 유도하였으며 환자들은 집단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춤을 추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침대로 보내졌다. 많은 의사들이 이 병의 치유를 혈액순환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다른 방법을 동원해 춤을 춘 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게하고 땀을 흘리도록 했으나 타란텔라만큼 효과는 볼 수 없었다(Juliette, 1980: 71-73).

16세기에는 독거미에 물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정신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 이에 대해 김영주(1991)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 춤이 가진 카타르시스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타란텔라는 이태리 여러 도시에서 민속무용으로 행해지고도 있다.

Ⅲ. 중세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통한 무용현상 분석

1000년이 넘는 시기의 중세시대는 지속적인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봉건제도로 인하여 인간 사회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였고,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사회적 현상에 의해 나타난 무용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시대의 무용현상은 봉건제도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농민무용과 귀족무용으로 나뉘게 되었다. 중세시대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무용을 통하여 표출하였으며 이는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또한 귀족사회에서의 무용은 의식적인 의미는 배제되고 친밀감을 제공하는 사교의 목적으로 무용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대의 무용은 순수예술로서의 무용과 대중예술에서의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¹¹⁾라는 의미로 나뉘어져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무용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스트리트 댄스는 즉흥적인 프리스타일을 통해 음악적인 요소를 몸으로 표현하며(위키백과사전) 자신의 에너지를 분출함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였다. 스트리트 댄스가 대중음악을 통하여 빠르게 대중에게 흡수되어갔던 것에 비해, 순수예술로서의 무용은 진 에드워드 비이스가 현대예술의 문제점이라고 꼽은 자가당착과 엘리트주의로 인하여 실제적인 인간 삶에서 절연되고 말았다(Gene, 1994: 11-12). 사실상 무용은 인간의 삶, 그 자체여야 하며(Isadora Duncan 1879-1927, 현대무용의 창시자) 신체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이어야 하지만(Mary Wigman 1886-1973, 현대무용가), 오늘날의 무용은 주관적 표현의 일방적인 전달로 인하여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다. 또한 중세시대 무용이 가졌던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농민무용의 정신보다는 귀족무용의 엘리트주의와 무용가의 자가당착으로 인하여 현대에서 무용은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무용은 외관 중심의 심신 이원론적 신체적 가치관이 아닌 인간미 중심의 심신 일원론적인 가치관으로 무

11)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20세기 이후 각 문화의 전통무용이나 발레, 모던 댄스등의 순수무용으로 부터 유래하지 않은 대중문화 기반의 춤

용의 어떤 현상이나 발전, 기획보다도 인간미의 회복을(박순자, 2009: 55)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세시대의 무용은 집단무로 이루어졌다. 초기 중세시대는 나라가 멸망하고 건국초기의 사회가 그러하듯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이민족의 침입과 전쟁은 도시를 파괴하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경제활동은 어렵고 농사를 통해 얻는 경작물로 자급자족의 실물경제 활동과 물물교환을 통한 경제활동밖에 할 수밖에 없었기에 농민들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몹시 고단하였다. 더불어 귀족사회에서도 봉건제도로 인해 발생한 계급이 집단을 형성하게 하였고 그 집단의 결속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했다. 즉,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중세시대의 무용을 독무보다는 2인무, 더 나아가 집단무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였다. 교회에서의 무용 역시 집단무의 형식을 취하였다. 예배에서의 집단무용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은 자로서의 역할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었다.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심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 밖에서의 무용에서도 역시 나타나는데, 당시 추어졌던 죽음의 춤, 무도광, 성 비투스 춤, 타란텔라 등의 무용에서도 집단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집단무 형식에서는 행렬무의 형태도 나타나는데 행렬은 여럿이 줄지어 간다는 뜻의 ‘행진하다’는 의미와 ‘걷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멈추어 있는 정지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로 혼자서 아닌 여럿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간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외스터리(W.O.E. Oesterly)¹²⁾는 ‘집단’은 끈을 의미하며 군무는 인간 상호간의 연계성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로 무용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현대 무용계에서는 커뮤니티 댄스의 활동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본질적으로 ‘모든 무용, 모든 댄서, 모든 춤추기’로 제약이 없는 춤이며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맞추어(2012, 공연저널리즘, 춤 웹진)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고 인간의 움직임을 통하여 개인의 참여와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무용을 추구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에 앞서 이미 2000년경부터 한국에서는 무용치료가 시작되어 지금은 무용의 한 분야로

12) 외스터리(W.O.E. Oesterly 1866~1950) 영국의 신학자

자리매김하였는데 무용치료 역시 순수예술로서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인간의 움직임을 통한 자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생명력을 통한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 무용치료는 무용 전공자나 전공자가 아닌 자나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댄스는 무용가와 함께 무용가, 일반인, 장애인, 비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무용을 경험하고, 치유를 통하여 하나 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신뢰를 통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성은 인간의 있음 그대로의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꾸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의 자아를 잘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죄악으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자기애(愛)가 아닌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고난을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세시대에서는 무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나타났다. 특히 농민무용의 경우 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공연장이 아닌 마을의 공터나 광장 등에서도 무용을 하였다. 또한 소재의 자유로움과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 민속적 무용으로 발전했다. 더불어 수레무대가 사용되었다. 이는 유랑연예인들이 끊이지 않았던 중세 초기 시절 시골을 유랑하면서 촌락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만든 이동 수단이자 무대로 사용한 것이다. 반면 귀족들의 무대는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가면무용, 극무용 등이 발전하면서 무대라는 공간을 형성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무용이라고 하면 대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순수예술로 한계가 지어졌다면 최근에는 규모 300여석의 중극장도 많이 증가하였고 특히나 2013년 한국 춤계에서는 작은 소극장이 많이 증가하였다(2013, 춤웹진). 즉, 무용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많이 증가하였고 새로운 춤의 기획들도 많아졌다. 더욱이 무용이 공연장에서 나와 버스킹(Busking) 즉 거리의 예술가가 되면서 무용은 지하철 문화예술 무대, 고궁 등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용을 알리자는 취지의 무용 버스킹과 플래시 몹(Flash mob)¹³⁾이 도심 한 복판과 광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능 기부, 혹은 찾아가는 예술 공연¹⁴⁾ 등의 이름으로

13) 플래시 몹(flash mob) 특정 웹사이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단체인 (smart mob)의 합성어로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과 전자 메일, 휴대 전화등의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는 금세 흩어지는 것

기획되어 지역의 병원, 학교, 야외음악당, 박물관, 노인 복지 회관, 실내 체육관 등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며, 여름 해변에서의 무대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에서의 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귀족사회에서의 무용은 사교 뿐 아니라 가면무용, 극무용 등 종합예술로서 무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귀족들은 여흥을 돋우기 위한 가면무용을 추었다. 가면은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귀족에게 일종의 자유함을 줄 수 있었으며, 내가 아닌 타자가 되어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쇼 형태로 발전하였다. 소재면에서도 성서의 일화, 영웅들의 이야기를 표현하였고 당시 극무용은 전문 무용인이 참여해야 했기에 무용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며 무용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이러한 무용의 발전은 무용 뿐 아니라 음악, 시, 판토마임, 기계장치등과의 종합적 공연물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은 향유자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감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이점을 가진다. 특히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은 무용이론사전에서도 성스러운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문화선교 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혹은 복음을 증거 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좀 더 쉽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때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나, 일반 무용에서나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중심이 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용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음악, 조명, 장치 등의 관련요소들이, 무용극, 판토마임 등의 표현의 형식들은 무용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 내용 없는 형식만이 기억에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종합예술이라는 것은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객에 대한 섬김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대의 무용이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선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의 발전과 더불어 관객에 대한 섬김의 자세로서의 종합예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움직임의 다양성이 나타났다. 사람의 움직임은 같은 동작이더라도 어떠한 감정을 신드냐에 따라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중세시대의 귀족들은 땅에서 발을 떼지 않고 차분한 움직임을 표방하였고 농민들은 크고 활발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호핑(hopping)과 리핑(leaping), 빙빙돌리는 움직임, 트라이푸디엄(Tripudium)의 스텝을

14)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간이라는 경기도 부천시 기획이 있음

통하여 기쁨의 최절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모방함이나 의식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자발적인 몸짓을 유도함으로 해방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텝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 반대적인 작용도 함께 나타냈는데 같은 스텝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추어졌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식 무용들은 스텝을 바탕으로 한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고, 귀족들의 무용에서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후기 중세시대의 무용은 매우 격렬하였는데 교회 밖에서의 죽음의 춤들은 히스테릭하고 광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팔짝팔짝 뛰고, 구르면서 전신을 비틀고 날뛰며 돌아다녔고 머리를 흔들거나 온몸을 떠는 동작이 나타났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옷이 벗겨지는 지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으로 예배하였다(사무엘하 6:14~16).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 모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였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용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의 통합과 치유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무용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는다. 일상적인 움직임을 무대에서 표현함으로 향유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공연의 반 이상을 뛰고, 털고, 구르며 관객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내용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장르에서 추어지는 대표적인 동작을 서로 차용하기도 하며 그 움직임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한국무용에서 발레의 요소를 가미하여 혹은 현대무용의 요소를 가미하여 한국창작무용이 되고 컨템포러리라는 이름으로, 창작무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움직임의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움직임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존중이며, 이 움직임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신다(데살로니가전서 5:23)고 하셨다.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의 창출 속에서 표현함에 정당한 움직임, 신체에 반하지 않는 움직임을 통한 표현이 필요하다.

여섯째, 무용을 통한 카타르시스와 엑스타시, 전염현상이 나타났다. 후기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죽음의 춤, 무도광, 성 비투스, 타란텔라 등의 무용은 앞선 무용들보다 더 격렬하고 광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자 하였다.

카타르시스는 고대 그리스어 Katharsis에서 유래된 용어로 ‘정화(cleansing)’와 ‘배설

(purgation)'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화는 종교상의 의식에 있어서 죄의 더러움을 씻고 심신을 깨끗이 한다는 뜻에서 적용되는 감정의 불순한 부분을 씻어 없앤다는 의미이다. 특히 배설은 인간 본연의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배출시키고 정서를 순환시킴으로써 더욱 건강한 인간을 추구한다. 즉, 본질적으로 모든 문화적 중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줄 인간의 존재를 가장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통합시켜줄 수 있으며, 유일한 현상이 카타르시스인 것이다(이화진, 1996: 89). 카타르시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현상은 엑스타시라 할 수 있는데, 엑스타시는 “나”라는 의식을 넘어선 또 다른 의식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¹⁵⁾은 엑스타시는 근대 이전 종교에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종교적 가르침이 “생생한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앎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엑스타시가 모름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엑스타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암시적인 몰입을 뜻하며 강력한 집중력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상태를 의미한다.

중세시대의 무용은 개인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감정을 털어내고 엑스타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엑스타시 상태는 집단 엑스타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카타르시스와 엑스타시 상태가 주변으로 전염되어 집단 엑스타시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엑스타시의 개념은 약물 중독에 의한 환각상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깊이 빠져서 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라고 하기도 하다. 최근 국립단체에서 죽음과 사후에 대한 주제를 무속의 관점에서 공연하였다. 공연에서는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 마치 이생의 모든 것을 털어내야 한다는 듯 온 몸을 털면서 자아가 사라지는 듯 무(無)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번식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름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즉, 개인의 카타르시스를 통한 엑스타시와 엑스타시의 전염으로 인한 공동체의 엑스타시 현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반복되는 동작을 통하여 주술을 걸고, 접신을 하며 엑스타시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인간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행위였으며 그 순간 나 자신을 다른 존재의 뒤로 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참된 신, 하나님에게로의 의지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용을 통하여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용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무용계에서 카타르시스나 엑스타시에 대

15)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 1944년 ~) 영국의 종교학자

한 언급은 쉽게 들을 수 없다. 무용 기사, 비평집, 무용잡지 등 교과서를 제외한 매체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나 엑스타시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고 무용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엑스타시, 카타르시스 모두 개인의 만족을 통한, 개인의 의를 위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고린도전서 6:11)” 체험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전서 5:17)”하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인류는 신을 섬기며 두려워하고 신과 교감을 갖는 생활을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빠져 있거나 세상에 빠져 신에 대한 감각이나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미미한 가운데 살고 있다(박순자, 2003: 151). 이러한 현상은 삶의 원칙과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인간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놓치게 한다. 인본주의에 빠져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허무주의¹⁶⁾와 염세주의¹⁷⁾를 낳아 인간 스스로를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쾌락주의와 성의 상품화, 미신과 종교적 이단들, 집단자살과 신종플루, 에볼라 등과 같은 현상은 마치 중세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된 본 연구에서 중세시대의 무용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무용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세시대라 하면 무용의 암흑기라는 오명 속에 소수의 종교무용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상 중세시대의 무용은 봉건제도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신분이 나뉘어져 각 신분에 맞는 무용이 발생하며 발전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즉, 오늘날에 알려진 ‘무용의 암흑기’라는 인식보다는 “무용 인식에 대한 암흑기”라고(박희진·태혜신 2011: 25)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중세시대의 금욕주의처럼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과 신체에 대한 인식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무용인들의 신분계급은 미천하였고 긴 시간 이어져 온 무용에 대한 인식은 폐쇄

16) 없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니힐(nihil)에서 유래된 말로서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식도 아니되며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상적 태도이다.

17) 최악을 뜻하는 라틴어 페시미즘(pessi-mus)에서 유래된 말로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무용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무용을 이제는 좀 더 대중적이고, 만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TV 프로그램 편성 혹은 대중예술과 협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댄싱 9」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MBC의 무한도전¹⁸⁾에서 노출되었던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트로트에 접목한 현대무용 혹은 KBS 1박 2일¹⁹⁾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이 게스트로 출연함으로써 대중은 무용을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무용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찾아오는 관객을 기다리는 것 뿐 아니라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공연, 타 장르와의 크로스 오버 등과 같은 무용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처럼 무용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희나 오락만을 위한 무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을 통하여 관객과 소통할 때에는 일회성의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즉 메시지를 담아 그에 합당한 형식을 찾아 표현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애국심, 준법정신과 같은 내용에 이에 합당한 움직임의 언어, 표현형식을 모색하여 향유자에게 다가간다면 향유자들은 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세시대의 무용에서는 움직임의 다양성이 나타났다. 이는 집단무 형태의 원무와 행렬무, 다양한 형태의 스텝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울증, 조울증, 자살,묻지마 폭행·살인 등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선택적 독신 등으로 사회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서적 불안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게 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축소시키며 인간을 무기력하게 한다. 그러나 의지를 가진 인간은 혼자 일 때와 둘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있을 때 생성되고 표출하는 감정과 에너지의 폭이 달라진다. 개인의 두려움은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치유될 수 있고 융화될 수 있다. 중세시대의 집단무, 원무, 행렬무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공간이었다. 또한 원은 공공의 공간이며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들

18) 2013년 10월 26일 353회

19) 2010년 2월 14일

과 조화를 느끼며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소우주적인 공간이다(류분순, 2000: 197). 어떠한 계급이나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군림하지 않으며 소외되거나 차단되는 것이 없다. 스텝에 있어서도 호핑, 리핑 등과 같은 스텝을 통하여 기쁨의 표출과, 뛰고, 털고 흔드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의 무용은 공동체 의식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 무용치료 프로그램 중 공동체 작업에서는 원무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무용을 통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 무용 동작치료, 춤 치료(dance therapy) 등과 같은 무용을 통한 치료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한 개인의 감정의 카타르시스(카타르시스)는 무용을 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마이너스적 감정 해소와 자아를 넘어서는 개인의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엑스타시는 개인을 넘어서 집단을 전염시키는 집단적 엑스타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내면적 표현이, 인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무용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라는 물음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세시대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무용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중세시대와 비슷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중세시대에 무분별하게 추어져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죽음의 무용을 현재에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예술이 전염병 같아서 퍼져나가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은 선이고 예술의 목적을 기독교에서 찾고 있으며 참된 예술의 역할은 폭력이 아닌 신의 나라를 건설하여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값 없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기독교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중세시대 역시 세속화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 인구는 22억 9245만 명으로 세계 1위(세계 종교인 조사)²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²¹⁾ 종교를 갖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종교인들 중 기독교 인구는 59.2%(천주교 36.7%, 기독교 22.5%)²²⁾로 과반수이상의 높

20) 세계 종교인 조사, [검색일: 2015.1.25.], <http://1535.tistory.com/126>. 블로그

21) 2004년 한국갤럽, [검색일: 2015.1.25.]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독교는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중세시대나 현대사회에서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인간은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함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무용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은 최대의 수혜자이자 가장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회적 현상은 인간을 움츠리게 만들고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중세시대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사회이지만 일상과 신앙의 불일치로 인한 이율배반적인 무용은 인간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오늘날의 무용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표현이나 자기만족에 의한 무용이 아닌 변치 않는 진리를 표현하며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표현하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말씀에 기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종교적 자각을 통한 선한 예술의 감염이 만인에게 평등과 사랑을 전염시킬 수 있고 이것이 예술의 목적이라고 한 것처럼(톨스토이, 1988: 74), 생명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바탕이 된 기독교적 무용예술관의 정립과 회복이 필요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3:4~7).”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무용을 통하여 전달되어진다면 무용을 하는 무용수에게나 무용을 보는 관객에게나 동일한 감동을 전달하고 이를 통한 마음의 치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인류 최고의 목적인 사랑을 무용인들이 자각함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와 마음을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2) 2014년 4월 4일~ 15일 대한불교조교종 고산문화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8세이상 65세 이하의 일반 국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검색일:2015.1.25.], <http://1535.tistory.com/126>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말복 (2011). 『무용예술코드』. 서울: 한길아트.
- 김홍기 (2009). 『김홍기 총장이 쉽게 쓴 세계 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 류분순 (2000). 『무용/동작 치료학』. 서울: 학지사.
- 박순자 (2004).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금광
- 박영애 (2005). 『기독교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이석우 외 (2005). 『서양문화사상의』. 서울: 형설출판사.
- 김은정 (2005). 「기독교 관점에서 무용치료의 전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1991). 「중세 무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죽음의 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지연 (2010). 「중세 유럽의 무용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5권, 제2호. 77-87.
- 박순자 (200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무용치료의 가능성」. 『무용예술학연구』. 제12집 가을. 143-164.
- 박순자 (2009).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 『무용예술학연구』. Vol.28. 37-58
- 박영애 (2006). 「문헌을 통해 본 무도광(Dancing Mania)과 타란티즘(Tarantism)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제10권. 31-48.
- 박정희, 육완순 (1986). 「중세의 무용과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 논문집』 14. 336~343.
- 박지영 (2000). 「중세무용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태혜신 (2011). 「무용사회학 관점에서 본 중세시대 무용예술의 의미」. 『한국무용학회지』. Vol. 11(2).
- 백은아 (2006). 「중세유럽의 사회와 무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민 (2005). 「중세 무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제45권.
- 육동림 (2008). 「중세기의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1995). 「무용치료(DANCE MOVEMENT THERAPY)의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 (2015).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제735권 2호. pp. 88-91.
- 이화진 (1996). 「춤에 나타나는 카타르시스 현상에 관한 연구 : 춤의 본질과 카타르시스의 관계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길선 (1987). 「개신교와 천주교의 신학적 차이」.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Vol. 425 No.-. pp. 95-113.
- 조미애 (1987). 「중세후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D, Diane A. C. 김명숙 역 (2000). 『종교와 무용』. 서울: 당그래.
- Celeste S. 허성식 역 (2002). 『몸으로 드리는 기도』. 서울: IVP.
- Curt S. 김매자 역 (1983). 『세계무용사』. 서울: 풀빛

- Germaine P. 양선희 역 (1995). 『무용의 역사 I』. 서울: 삼신각.
- Juliette A. (1980). 『음악의 기원과 정서분석』 서울: 오른사
- Gene E. V. Jr.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 나침반.
- Schmidt, K. D. 정병식 역 (2010). 『살아있는 역사 교회사』. 서울: 신앙과 지성사.
- 네이버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B%B2%84>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
- 부산일보 종교칼럼 '빛' 진통제 하느님 [2015.1.25.]검색<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003000033>
- 세계의 종교 현황 조사(2014). [2015.1.25. 검색] <http://1535.tistory.com/126>
- 춤웹진 <http://koreadance.kr/index/webzine/index.html>
- 한국의 종교인 현황 조사(2014). [2015.1.25. 검색] <http://1535.tistory.com/126>

ABSTRACT

An Exploration on Development Direction of Dance through Dance Phenomena in the Middle Ages

Su-Ji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on-Ja Par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umerous social phenomena in modern society threatening the lives of people such as hedonism, commercialization of sex, heresy and superstition and infectious virus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Middle Ages. Anxiety, horror and fear felt by individuals in the Middle Ages gradually spread to overall society and people tried to relieve these fears through dance. Although dance in the Middle Ages was on the one hand recognized as the ceremony of body due to Christianity which influenced society as a whole, asceticism which regarded body as something ignoble worked on the other hand as the cause of prohibition of dance. Still, feudal system which hierarchized human status produced more numerous and diverse kinds of dances. These dances in the Middle Ages appeared in the form of circle dance and parade dance as group dance and were expressed in various forms of movements and steps. In addition, they enabled individuals to experience catharsis and ecstasy phenomenon and were accompanied by ecstasy phenomenon of groups through contagion. On the basis of dance phenomenon in the Middle Ages, this study explored development direction of dance today; first, for the change of recognition on dance, it is necessary to launch promotion through mass media and prepare and execute plans such as ballet with explanation, ambulatory performance and crossover with other gen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dance therapy programs such as community dance, dance movement therapy and dance therapy for humans who cannot but feel anxiety in an insecure

society. Third, as dance is an art with special factors of catharsis, ecstasy and contagion, it is necessary to restore Christian perspective of art which can infect equality and love to all people with religious self-awareness of virtuous art. This study hopes dance in modern society shall be used as a tool to treat human body and mind and save lives without following the practices of the Middle Ages through awareness of dancers.

keywords : Dance in the Middle Ages, Feudalism, Christianity, Social Phenomenon, Dance Phenomenon, Christian perspective of art, Life